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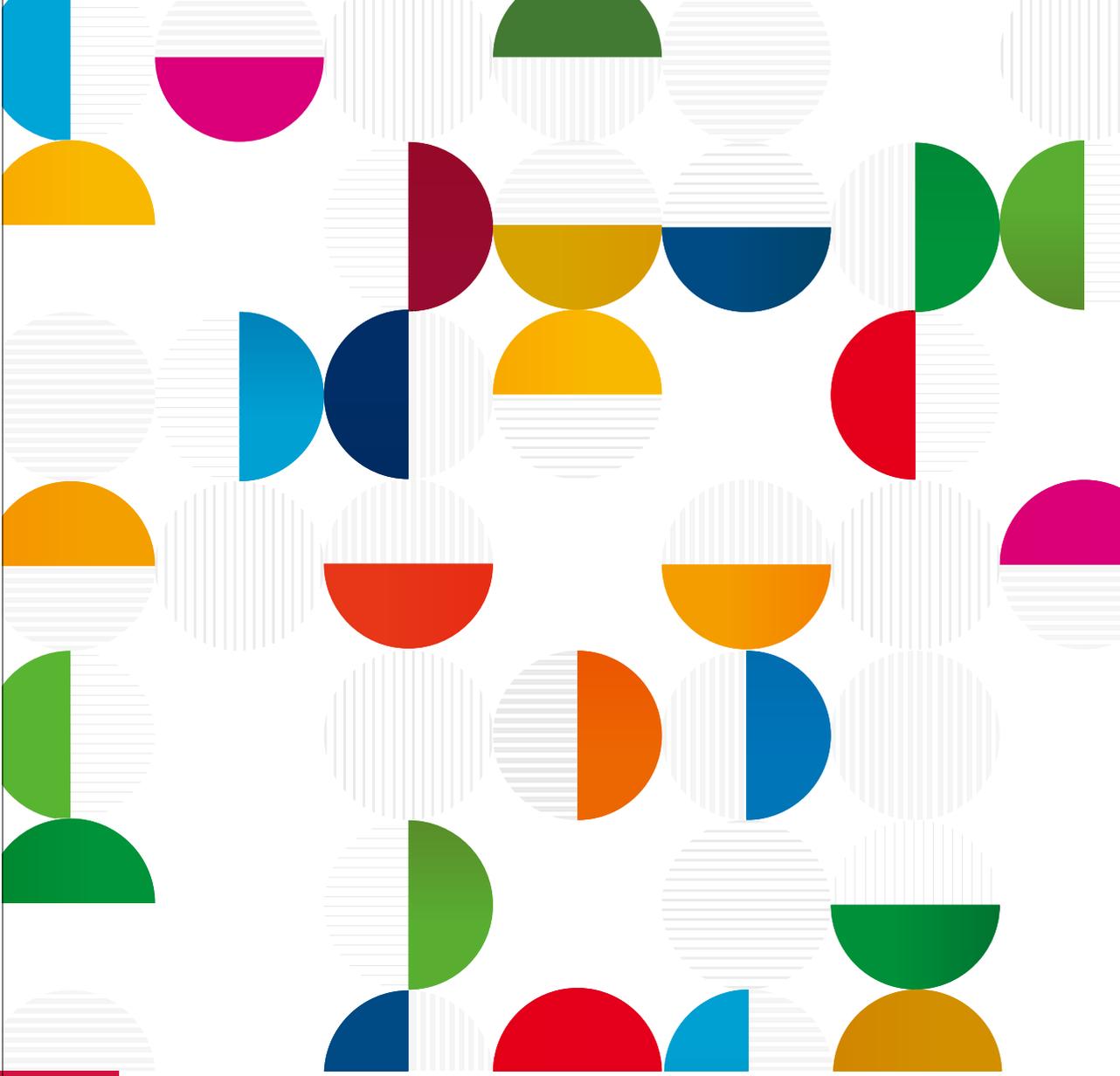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헌장(前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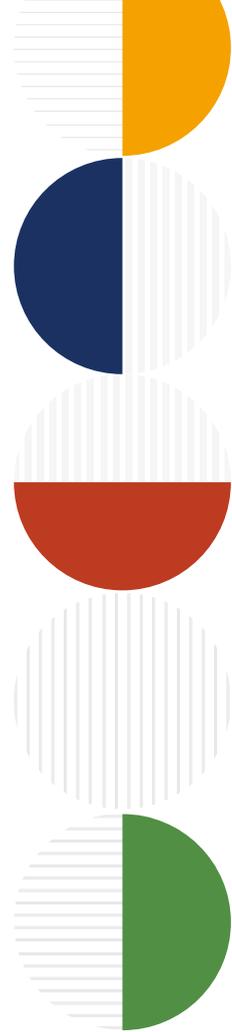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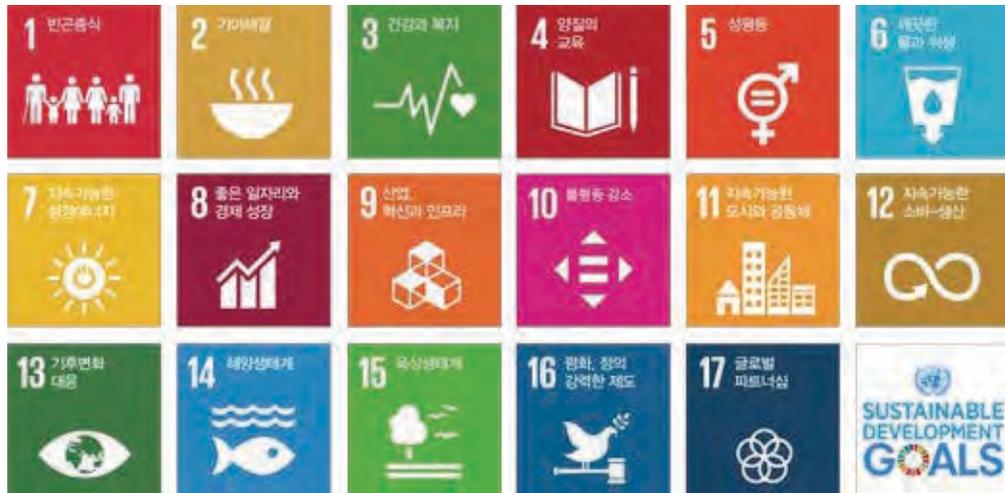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화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에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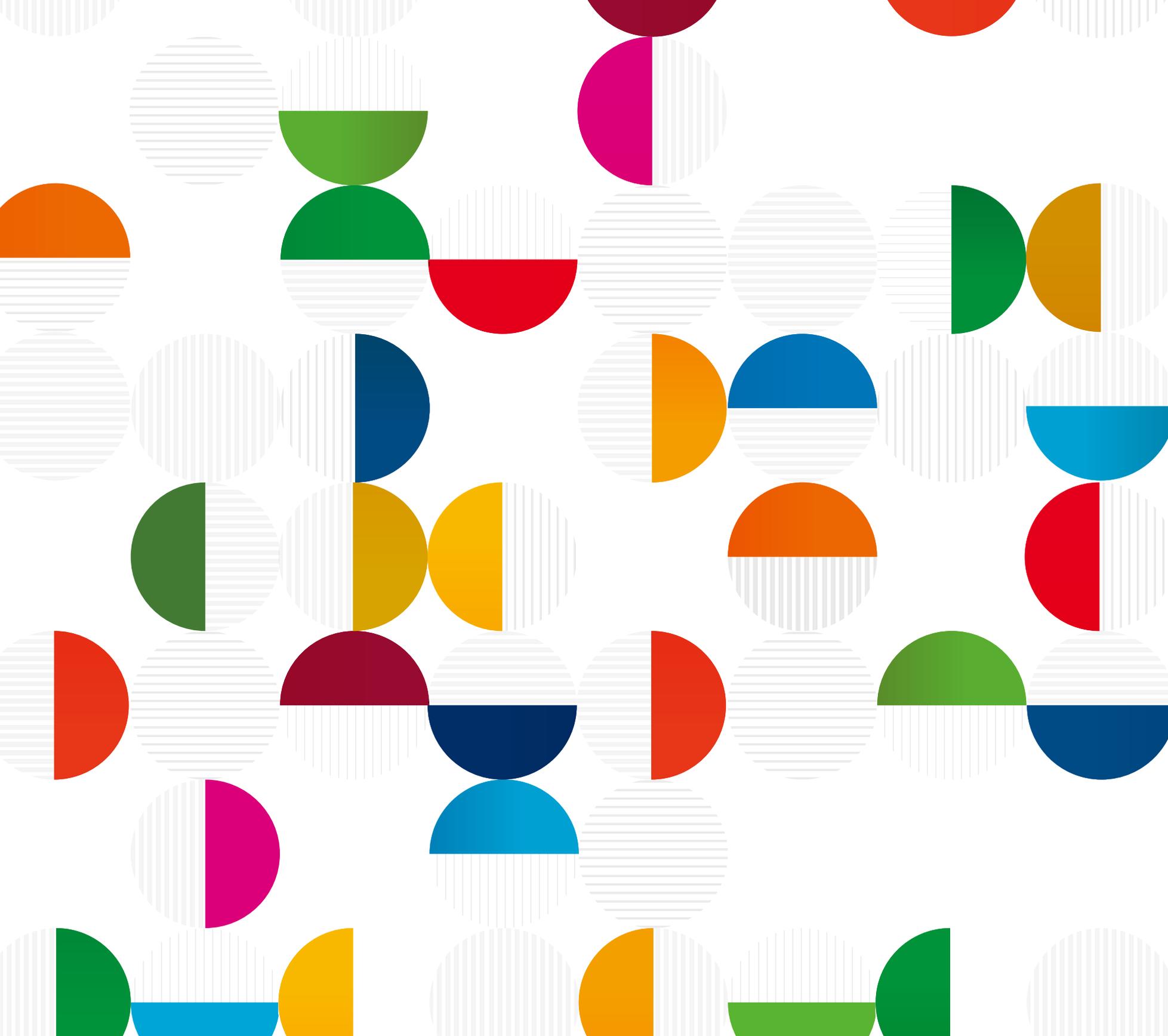
1945년 11월 16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tents

<hr/>	
01 유네스코 평화누리 소개	7
<hr/>	
02 2019년도 유네스코 평화누리 동아리	10
<hr/>	
03 동아리별 활동보고서	13
· 더bro	14
· 동국대학교 KUSA	25
· 사이버 와이즈(Cyber Wise)	33
· 숙명여자대학교 KUSA	41
· 슈쿠(SWU KU)	48
· 쿠사랑	59
·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	67
<hr/>	



01

.

유네스코
평화누리 소개

유네스코 평화누리 사업 소개

‘유네스코 평화누리 사업’은 2013년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평화, 인권, 민주주의)을 주제로, 청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변화의 주체(agents of social innov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평화누리 사업을 통해 전국 대학(원)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5명)를 선발하여 소정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 유네스코 본부·한국위원회 관련 정보 및 공지 안내, 워크숍 및 활동보고회 개최, 각종 네트워크 활용 지원, 프로젝트 현장 지원 등 청년들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활동 분야의 전문가나 대학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전체 인원 중 대표 및 부대표를 포함한 80%가 대학생이라면 기존·신설·연합·프로젝트성 팀 모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매년 3월 초~4월 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 공지사항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발 기준은 △ 적합성: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 독창성: 프로젝트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 실천가능성: 내용, 인력 상 계획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은가 △ 파급효과: 프로젝트가 대학 및 지역사회, 우리 사회 인식 및 제도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입니다. 평화누리 활동을 충실하게 완료한 팀원들에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유네스코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들을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창의력을 이용해 변화를 만드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년들이 사회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활동과 노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며 청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합니다. 많은 대학(원)생·청년들이 유네스코 평화누리 사업을 포함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청년 활동에 참여하여 유네스코의 이념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2019.5.3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유네스코 평화여행

2019.6.28-30 서울, 이천, 안산



세계청년의날 캠페인

2019.8.12

서울 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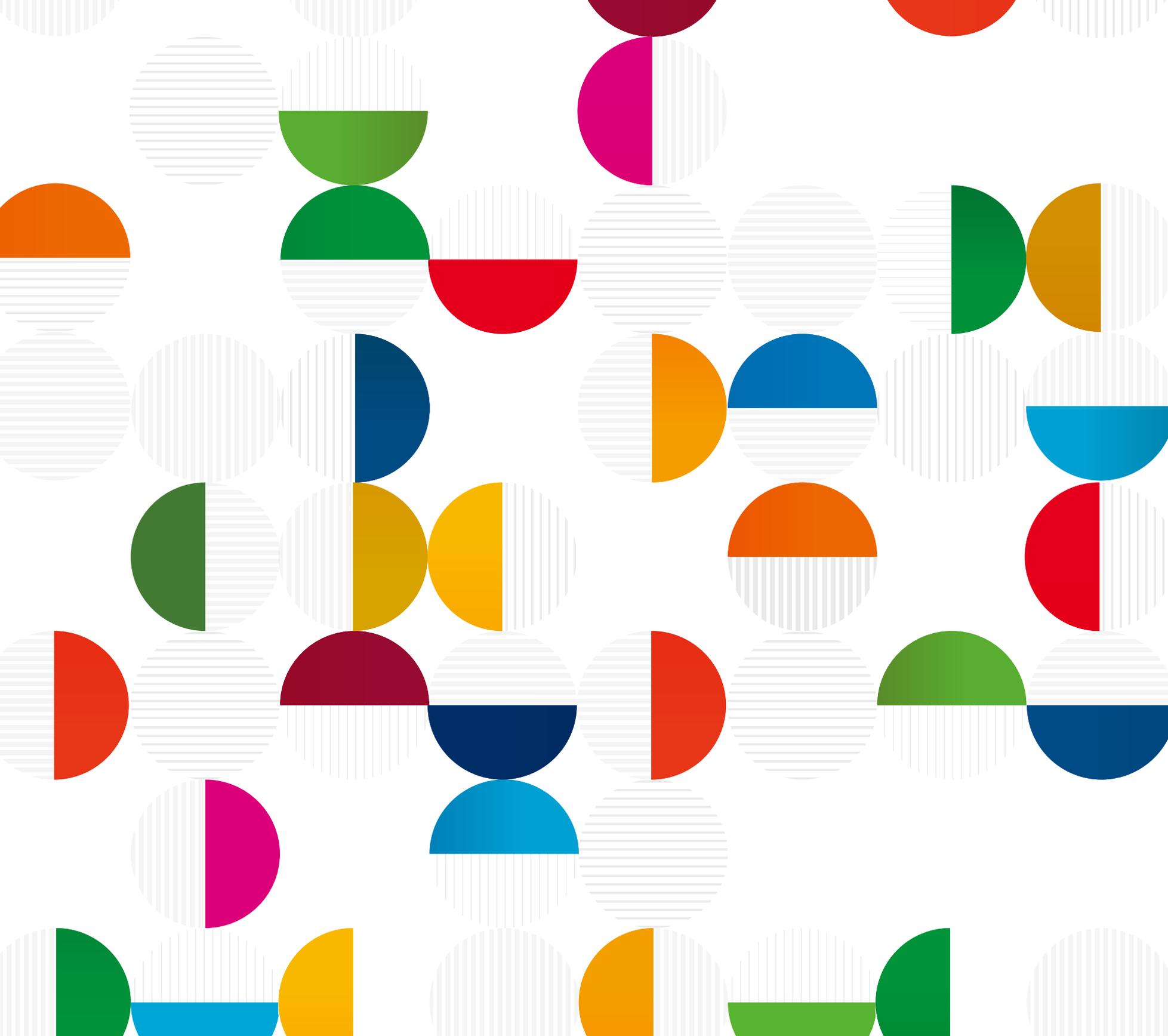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공유회

2019.11.1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02

•

2019년도
유네스코 평화누리
동아리

2019년도 참가자

전국 7개팀 35명의 청년들이 참가

	동아리명	소속학교	프로젝트명	인원
1	더bro	경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우리들의 이웃, 한국인원폭피해자	5
2	동국대학교 KUSA	동국대학교	소소행 (소외계층을 통한 소소한 행복)	5
3	사이버 위즈 (Cyber Wise)	선문대학교	International Students for Education on Cyber Bullying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 교육을 위한 청년들	5
4	숙명여자대학교 KUSA	숙명여자대학교	淑明:세상을 밝힐 숙명	5
5	슈쿠 (SWU KU)	서울여자대학교	휴먼필릭(Human-phillic)	5
6	쿠사랑	서울여자대학교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하는 노인들	5
7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	고려대학교	지속가능 GCED X 멘토링	5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03

동아리별 활동보고서

- 더bro •
- 동국대학교 KUSA •
- 사이버 위즈(Cyber Wise) •
- 숙명여자대학교 KUSA •
- 슈쿠(SWU KU) •
- 쿠사랑 •
-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 •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우리들의 이웃, 한국인 원폭 피해자

더Bro

우리들의 이웃, 한국인 원폭 피해자
더Bro



함께한 친구들 노영은(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은(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양지원(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주열(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연다은(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지역, 학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핵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우리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핵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주제는 조건이 되면서도 결과인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전쟁과 전쟁위협이 없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 주류화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한 정부 감시는 튼튼한 평화를 이룹니다. 즉 저희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대학생시민사회 구축으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강제 징용되어 피폭된 조선인 후손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평화로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지역,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했나요?

우리 사회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첫째로 비핵화 - 평화 감수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핵과 관련된 실질적인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더는 핵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미래 사회 건설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 즉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민주주의가 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리고 참여를 이뤄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동아리를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5월 18일 민주주의 스터디

5명의 팀원 모두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스터디룸에 모여 평화누리단 첫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스터디 진행 방향과 퍼실리테이션 일정을 구체화하고 진주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양상을 배우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강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논의하였다.



5월 21일 퍼실리테이션

5명의 팀원 모두가 퍼실리테이션의 직접민주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열 학생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아 하버마스과 롤스의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간략하게 퍼실리테이터가 갖추어야 하는 경청의 기술을 체험해보기 위해 "돌멩이 수프" 역할극 시간을 가졌다.



6월 4일 퍼실리테이션

5명의 팀원 모두가 모여 퍼실리테이션 1일 차 내용을 복습하고 민주주의 과정에 있어 참여적 그룹과 전통적 그룹을 비교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회의 결정하는 방법과 목표를 결정하였다.



6월 18일 퍼실리테이션

4명의 팀원(연다는 학생 제외)들이 모여 퍼실리테이터로서 회의를 진행할 때, 참여자들의 수용 가능한 의견의 수준의 단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경청하는 지등의 이론적 방법에 대해 배우고 기존에 자신의 경청방법에 대해 공유하였다.



7월 2일 퍼실리테이션

5명 팀원 모두가 모이고 장해찬 학생, 정종석 학생, 권성원 학생들과 함께 경상대학교 반반스프링 커피점에서 퍼실리테이션 실습을 하였다. 주제는 휴게음식점의 NO kids zone 도입으로 카페 주인, 건물주인, 대학생, 어린이, 젊은 부모 등의 다양한 역할을 나누어 실습을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경청에 대해 배우고 토의하는 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6월 22일 민주주의 스터디

노영은 학생과 이주열 학생이 단란하게 모여 6월 민주주의 스터디를 하였다. 저번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을 공동주제로 이주열 학생은 홍콩시위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관성을 이야기하였고 노영은 학생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7월 16일 퍼실리테이션과 민주주의 스터디

이주열 학생과 왕지원 학생, 노영은 학생이 경상대학 반반스프링커피에 모여 퍼실리테이션과 민주주의 스터디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퍼실리테이션 실습 주제로는 물의를 빚은 유명인의 작품(소설, 노래)을 소비해도 되는가로 교과서, 음악앱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다. 또한 노영은 학생은 '일본이 일당제인가?'를 주제 스터디한 것을 나눔 하였고 이주열학생은 청소년의 투표권에 대한 스터디를 나눔 하였다.



7월 30일 퍼실리테이션

마지막 퍼실리테이션으로 5명 팀원 모두 참석하고 협동조합 밥꿈 공간에 모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퍼실리테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공유하였다. 퍼실리테이터로서 대화의 흐름이 결론 도출로 이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추상적인 방안과 협의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결론을 맺으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또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의 스타일대로 회의 진행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8월 24일 민주주의 스터디

4명의 팀원(연다운 제외)들이 경상대학교 공차에 모여 5월부터 진행한 개별 장기 스터디에 대해 나눔을 가진 후, 8월의 스터디 내용을 공유하였다. 노영은 학생은 중국 천안문 사태에 대해 나눔을 하였고 이재은 학생은 비즈니스 민주주의, 이주열 학생은 앞으로 예상되는 선거 정당 형태, 왕지원 학생은 최저임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6월 20일 "흉터의 꽃" 내용 공유

5명의 팀원들이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모여 흉터의 꽃 책을 읽고 난 소감을 공유하였다. 기사와 논문을 통해 원폭 피해를 수치화하여 이해한 것과 달리 책을 통해 느낀 원폭피해는 더욱 처참하며 전쟁의 공포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캠페인의 다른 형태로 책 공유를 통해 보다 더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여, 독서강연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9월 23일 독서강연회

독서동아리 '해결'과 함께 협력하여 독서강연을 주최하였다. 일주일 정도의 홍보를 예상하였지만, 태풍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3일 정도 홍보를 하여 강연회를 열었고 10명의 학생과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1시간 정도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현황을 강연하고 30분 정도는 책 내용에 대한 설명, 20분 정도를 토크쇼로 진행하였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본래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일본의 기사를 통해 접한 것과 많이 달라 놀랐다는 사람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접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놀라하는 반응을 보였다.



7월 18일 한국인원폭피해자협회 방문

더BRO가 처음으로 합천에 방문하였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협회 합천지부장님께 자료관과 전반적인 협회의 실정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2층에 사무실에 가서 협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피빈 계좌설계와 위령제 행사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7월 225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방문 및 인터뷰

4명의 팀원들이(이재은 제외) 이번에는 합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 방문하여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협회에서의 위령제 행사가 복지회관 뒤편의 위령각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위령각에 방문해보았다. 이것이 일본 시민단체인 태양회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주셨고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기념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후에는 복지회관 안에서 피해자 할머니 세 분과 4:1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8월 6일 위령제

협회의 도움으로 위령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진행을 도왔고 평화누리단 활동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직접 제작한 기억 벚씨에 대해 설명해 드리며 우리들의 이웃의 소망을 전했다.



6월 3일~5일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동아리 활동 홍보

6월 본격적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더BRO 활동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기에 활동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3일간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를 홍보하였다. 또한 진주교육대 같은 경우 연다운 학생이 라디오 시간을 활용하여 나레이션 홍보를 진행하였다.



8월 15일 한국인원폭피해자 현황 전시회

8월 14일 위안부의 날을 창원에서 행한 것처럼 강제징용과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 속 소외된 이웃인 원폭 피해자 이야기를 8월 15일에 전시하였다. 8월 15일은 광복의 기쁨으로 맞이하기에는 그 전에 원폭의 아픔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판넬과 원폭 그림자를 시내 한복판, 지하상가 한복판에 설치하였다. 전시물까지 가는 방향에 화살표를 여러 개 설치하여 5명이 모두 한 번에 전시물 쪽으로 걷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다.



8월 28일 비핵화 평화기차 순례

8월 15일에는 전시를 하였고 28일에는 제작한 부채와 함께 원폭 피해자를 알리는 것과 비핵화와 평화 메시지를 던지는 기차순례를 진행하였다. 줄줄이 사탕처럼 걷고 호루라기와 그 외의 파티용품들을 활용하여 이목을 끌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시내 나온 어른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다. 마침 태풍 이후 습한 날씨가 이어져 평화부채는 불티나게 팔렸다.



협회 인터뷰 내용을 경남일보에 기사로 내다.

앞서 진행한 인터뷰 녹음 파일을 이주열 학생이 정리하여 기사화하였다. 더Bro에서 경남 지역민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말을 노영은 학생이 정리하여 기사를 냈고 이를 경남일보 실물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경남일보로부터 5부 정도 받은 것을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교수님들, 지인분들에게 각 1부씩 나눠드렸다.



9월 경상대학교에서 해피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다

후원방법으로 해피빈에 대해 협회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먼저 사람들에게 기존의 후원방법과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후원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경상대학교 축제 기간에 맞추어 바질캠페인을 준비하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인 경상대학교 축제에 맞추어 지역 청년들의 시민역량에 대해 나눔을 가지고자 바질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바질을 9월부터 심어 왼쪽 사진과 같이 길렀다.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더Bro는 진주와 합천을 주 활동지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진주에서는 경상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 진주 시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주제의 활동으로 민주주의 스테디와 퍼실리테이션 활동은 더Bro 팀원이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들에게 참여를 도모하여 같이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습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주변 카페에서 진행되어 시간이 맞는 친구들을 참여시켜 활발하게 역할극과 퍼실리테이터를 돌아가면서 맡아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으로 퍼실리테이션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지루하지 않은 역할놀이를 통해 실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을 표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팀원을 또한 이후 밥꿈의 퍼실리테이션과 내 함지네등 지속적인 지역참여를 끌어낸 활동이었다. 평화와 인권 주제의 활동으로는 복지회관과 협회에 연락하여 현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인터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비핵화’와 ‘평화’를 주제로 캠페인을 하였다. 합천을 탐방하러 가기 전에도 팀원들 간의 스테디가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관계자분들과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접한 것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정보들뿐이었다. 또한 기사 내용과 현실 이야기가 다른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경남일보와 연락하여 기사를 썼다. 그리고 직접 판넬과 부채를 제작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팀원들이 퍼포먼스를 통해 확실히 인상을 남기자는 추가의견이 있어, 파티용품을 사고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차를 제작하여 시내 순회를 하였다. 이때 8월 15일 광복절로 많은 어린이, 청년들이 관심 있게 봐주고 호응을 해주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더Bro는 원폭 피해자에 관한 굿즈, 프로젝트 홍보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마련해 원폭 피해자 협회에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100만 원 안에서 굿즈를 만드는 것과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아 애당초 실행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peacebro를 만들어 해피빈과 협회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계정을 만들어 더Bro의 활동 내용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구는 13명에 그쳤고 협회에서도 해피빈 계좌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누리단 일정에 맞추어 바질 캠페인을 하려고 했으나, 경상대학교의 축제 기간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로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 중입니다. 더Bro는 총 5명의 인원으로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2번의 캠페인, 진주 시내에서 3번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 준비 물품(천막, 책상 등)을 이동하는 데에만 많은 힘의 소모가 들어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캠페인 기획하는 과정에서 팀원 간의 불화가 생겨 이를 조정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하도록 만든다고 나머지 팀원들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명의 팀원이 학원 일과 일정이 겹치어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역할 분담을 조정하여 다 같이 성공리에 끝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 방문하여 할머니 세 분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을 했을 때, 공통질문으로 “할머니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란 무엇인가요?”를 드렸을 때의 한 분 한 분 소중한 답변이 기억에 남는다. 두 분은 공통적으로 핵이 없는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해주셨다.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덧붙여 주시며, 청년 다섯 분들이 부디 힘써주길 바란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다른 한 분께서는 자신의 평화적 상태에 관해 이야기해주셨다. 다행스럽게도 이 복지관에 들어올 수 있었고, 자식들의 부담감을 덜고 자신도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다. 특히 이 할머니 말씀이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원폭 피해자 당사자들에 대한 복지와 정책을 생각해보아도 그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회관 직속자사 부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증축을 했음에도 1세대 분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대기번호가 길어서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대다

수라고 하였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복지회관에 들어온 사실만으로도 평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암담하였다. 딱 협회 합천지부장님께서 “우리 모두가 죽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떠올랐다. 1세대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빨리 2~3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고 한국인들 모두가 기억하는 한 역사로 남기는 기념사업이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참가자 후기

노영은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더Bro의 프로젝트명은 ‘우리들의 이웃’이다. 이웃이라고 쓴 이유는 경남 진주에서 한 시간도 떨어지지 않은 경남 합천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있음을 몰랐던 것에 대한 반성과 제3의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합천에 가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분들을 뵈는 적이 없었기에 처음 방문했을 때 설렘보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인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님과의 만남에서 확신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며,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임을. 기사와 논문에서 접했던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이유에 대한 글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원폭 피해자 1세대인 합천 지부장님과 복지회관에서 생활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인터뷰 내용에 녹아 있는 정용과 수탈의 역사는 바로 나의 친할아버지 이야기와 같았다. 차이점은 그 공간이 일본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일 뿐이었다. 우리 더Bro 팀원들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며 소외되지 않도록 잊지 않아야 하고 국가에서도 이들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쟁 피해자분들에 대한 정책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찾아가고 ‘이웃’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다고 이야기해주시고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환영해주신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더 ‘이웃’의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주기적으로 기념행사를 해야 함을 느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보고 3가지 악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 3가지가 시대와 국가(정부)로부터의 소외와 방치, 같은 피해자들의 협력 거부 또는 묵언이다. 이러한 악조건 아래

당연히 공론화는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2019년은 처음 협회 활동을 시작한 1967년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로는 히로시마 원폭 74주기인 2019년 8월 6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추모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추모사로 협회에서 가장 바라왔던 “합천비핵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답사 비용이 정해졌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 들은 우리 5명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기보단 조성비용이 아닌 사전비용임에 실망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협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야 사전답사 비용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에서도 언급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협회의 ‘합천비핵평화공원’ 추진 계획과 그 목적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존재를 알리고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제는 이웃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지속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교육하는 장소인 “합천비핵평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여전히 미숙하여 캠페인의 효과가 미지근할지라도 지나가는 100명의 사람 중 단 1명의 사람의 “몰랐는데, 학생들이 힘써주니 좋네”라는 말 한마디를 더 듣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합천 출신인 김옥숙 작가님과 만남을 경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은 총 10명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경상대학교 학생 2명의 질문에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인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소외에 동참한 과거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순간에 나는 이번 유네스코 평화누리단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확실하게 느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리라고 다짐했다.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소소행 (소외계층을 통한 소소한 행복)

동국대학교 KUSA

소소행 (소외계층을 통한 소소한 행복)

동국대학교 KUSA



함께한 친구들 서지원(동국대학교 수학과), 은정인(동국대학교 법학과), 장라윤(동국대학교 국어문예창작학부), 이수정(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시현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지역, 학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을(아동, 노인,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봉사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돕는 방법에 대한 인식에도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지역,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했나요?

우리 사회에는 일방적인 도움의 방식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곤란함을 제거해주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봉사가 끝난 이후에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저 돕기만 하던 봉사에서 나아가, 대상자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자력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7월 30일, 저희는 기아챌린지 멘토링 연합나들이에 참여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 테마파크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가보지 못한 환경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며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소외된 계층인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함께 바우미문화복지관에서 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9일 여름방학에 12명의 아동, 청소년들과 같이 컵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처음 하는 경험을 주게 되어서 되게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여름 막바지인 8월 31일에 저희는 서울종로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 마로니에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과 함께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더위 나기 힘든 여름에 어르신들과 함께 시원한 화채를 같이 만들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터민 인식개선 부스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무궁화 관련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캠페인부스에 놀러 오라는 의미로 포스터도 제작했고, 새터민 관련 퀴즈를 맞히면 증정하는 무궁화 배지 그리고 무료로 무궁화 페이스페인팅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추석 연휴 기간 앞뒤로 동아리실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학교 축제 기간 중 하루인 9월 18일에 저희는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예전보다 줄어들고는 있다하지만 아직도 소외를 당하고 있고 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때도 있다는 최근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터민이 남한에 와서 차별받은 행동들에 관한 투표판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동국대 학생들로부터 투표를 받았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그에 관한 설명도 드리며 새터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준비하면서 저희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고 아는 부분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아와 협력하여 저희는 각자 1:1 멘토링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각자 멘토가 되어 멘티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학생들이 많이 가는 슬라임 카페나 보드게임 카페를 가기도 하였고, 시험 기간이면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험해보지 못한 천연염색체험이나 VR 체험도 하며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들을 옆에서 같이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저희는 소소행 프로젝트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부스를 통해 학교 학생들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O, X 퀴즈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팀원들 모두 소소행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봉사는 그들을 도움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하며 그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북한이탈주민 인식 부스 운영이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와, 우리 사회에 적응하며 가장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이유 4가지를 써서 무엇이 가장 큰 이유인지 맞추는 퀴즈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퀴즈를 하려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부산일보의 기사로 무사히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처음 활동을 할 때 직접 봉사 활동을 하나부터 열까지 기획해야 한다는 점이 버거웠지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후에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자 인상 깊었던 봉사는 조금씩 달랐지만 가장 많이 인상 깊었다고 한 봉사는 노인들께 화채를 만들어 나눠드리는 '수박화채 나눔 봉사'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준비한 봉사였기에 과정도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 처음 보는 저희를 너무나 밝게 웃으시며 친할머니처럼 맞이해 주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가 대접해드리려던 화채를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시며 주도해서 만드시는 모습, 그리고 저희에게 오랜만에 손녀가 온 것 같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봉사가 끝난 후에도 저희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두유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봉사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참가자 후기

이수정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희 팀은 소외계층을 통한 소소한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이, 북한이탈주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초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와 노인들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했고, 아이와는 정기적으로 1년 정도 활동하는 멘토링 활동들을 찾아 진행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이와 함께 성격검사나 진로검사 등을 실시하며 아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VR 카페, 방탈출 카페, 슬라임 카페 등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활동을 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아이들도 친언니, 친누나처럼 멘토인 저희를 따르고 아이들의 진로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동종합복지관에서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참여했었는데 이번 평화누리 활동을 통해서 느린 학습자라는 지적경계선 아이들이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직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활동을 하며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아무래도 보통 아이들보다 산만하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 학습지도를 할 때 조금 힘들기도 했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하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과 봉사 활동을 통해 만나다 보니 처음 기획했던 아이들과의 요리교실같은 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지관을 통해 제빵클래스를 기획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재료, 날짜 모든 것을 저희가 기획해야 하니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만큼 참여한 아이들이 소감문으로 재밌었습니다. 같이 제빵을 했던 아이들이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등의 의견들을 남겨주어서 저희는 뿌듯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노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분들의 건강검진 활동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분들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재촉하는 모습들을 보며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수고했다고 해주셔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박화채를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화채를 만들어 어르신께 대접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고 찾아봤는데 오히려 활동하다 보니 어르신분들이 수박 썰기, 파기 등 오히려 화채를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저조차도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병리적인 존재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화채를 만들고 나누어 먹으면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셔서 우리의 목표인 행복을 드린 것 같아 힘들었지만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많다 보니 어르신 부분은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체험 부스를 기획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임금 차별 문제 등 아직 여러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순히 북한문화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인식개선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 보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이유 중 가장 높은 것이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북한문화에 대해 알리는 것도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해,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된 OX 퀴즈를 진행했고 차별받는 원인 통계 자료를 조사해 퀴즈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5명만으론 부스를 운영하는 데 우리가 있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흔쾌히 참여해주어 성공적으로 부스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스를 방문해주셔서 퀴즈를 풀고 저희가 제작한 배지나 스티커 등을 받아가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축제를 진행하면서 새터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그것을 알게 되어 무언가를 알릴 때 많은 조사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화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상이 많아 조금 분산이 되고 노인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여러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멘토링 활동을 계속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인 (동국대학교 법학과)

처음 활동 팀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을 때는 솔직히 스펙이니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인원이 확정되어서 모였을 때도, 기획을 어떻게 해서 제출할까 회의

할 때에도 그저 생각나는 대로만, 깊은 생각 없이 활동에 참여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팀의 기획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고, 활동 동아리로 합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놀라기도 하고 앞으로 꾸준히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 만족스럽게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히 기억나는 단체 활동은 워크숍이다. 우리 팀원들도 다들 처음 보는 사이였기에 아직 어색하고 거리감이 컸는데, 워크숍에 같이 참여했던 팀원들과는 특히 허물없어진 것 같아 좋았고, 갈등과 평화, 평등 등에 대한 강의들과 세월호 추모관 등의 방문 활동도 하나하나 너무 와 닿아서 오랜만에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었다. 방학 기간 기관실습 등으로 너무 바빠서 다른 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쉬웠다. 전체적으로 평화누리 팀 모두가 모임 기획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음 평화누리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 단체 모임과 교류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팀원들이 모두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기는 했지만, 다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참여하려고 했던 모습이 특히 좋았던 것 같다. 오히려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하지 못한 회의 등이 있었던 점이 미안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점이 고마우면서 이런 친구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도 감사한 점이었다고 느낀다. 특히 우리 팀은 다양한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더 바쁜 만큼 오히려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아이들과 장기적으로 알아가고, 우리나라 여러 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볼 기회였던 것 같다. 특히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짐작할 수 있어서, 앞으로 다른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내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특히 좋게 와 닿았던 것 같다.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고,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소외감을 느끼는지, 같은 세대이신 분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 교류하고 의지하는지 등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조부모님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조부모님들도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들도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되어서 특히 가까운 주변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후회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 이 활동이 제일 뜻깊었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에 대해서 축제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에도, 나부터가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이 너무 많고 용어조차도 새터민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조차도, 통일운동 시민단체에서 실습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게 새삼 무관심했다는 것을 느낄 좋은 기회였다.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도 멋지게 보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분야를 우리가 좀 더 일찍 건드리고 공부하고 알고자 했다는 게 뿌듯했다. 솔직히 새터민 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부스까지 한다는 것에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을지 걱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부스에도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오히려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나였구나 반성할 기회이기도 했고 스스로의 편견도 깰 기회였던 것 같아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이 끝난 것으로 무관심해질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참여할 것이고, 타인과 더욱 편견 없이 소통하는 것이 정말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내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International Students for Education on Cyber Bullying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 교육을 위한 청년들

사이버 와이즈(Cyber Wise)

International Students for Education on Cyber Bullying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 교육을 위한 청년들
사이버 와이즈(Cyber Wise)



함께한 친구들 테이무리 잠 미나(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글로리아 훈순오무와레(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이스 마라냐(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제이슨 브란드너(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최은진(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지역, 학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2019 유네스코 폭력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10명의 아이들 중 1명의 아이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5.3 퍼센트의 아이들만이 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사이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예방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사회(지역,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했나요?

저희 팀은 학생들을 통해 사이버 폭력이 축소되는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게 될 SNS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받은 학생들의 소리를 듣고, 사이버 폭력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학생들의 소리를 청소년 진흥원과 함께 필터링하여 글을 작성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도를 교내에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를 스케치북에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영상으로 제작 및 편집하여 프로젝트 SNS에 게시합니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선문대학교 친교관 RC 라운지, 팀원 5명, 2019.5.9.

5월 9일 목요일에 팀원 전원이 기숙사 라운지에 모여 앞으로 있을 축제 활동 및 팀원 각자의 역할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사이버 폭력 인식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고자 설문형 및 인터뷰형 두 가지의 인터뷰 자료를 만들었다. 질문은 설문 응답자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설문 판넬에 들어갈 질문을 정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모여 제작을 할 예정이다.



선문대학교 친교관 RC 라운지, 팀원 4명, 2019.5.13.

5월 15, 16일 축제를 대비하여 설문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팀원들 모두 모여 하드 보드지를 이용한 설문 보드를 제작하고 사회실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선문대학교 축제(오프라인 설문조사 진행), 팀원 3명, 2019.5.16.

선문대학교 학우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했고 사회실험을 진행하였다.



선문대학교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2019.5.20.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선문대학교 친교관 RC 라운지, 팀원 5명, 2019.5.28.

축제 기간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추후 계획에 위해 모든 팀원들이 모였다. 모임을 통해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방문 기관 섭외와 사회실험을 기획하였다.



선문대학교 (온라인 설문조사 집행), 2019.5.28.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설문 결과가 다른 점을 알 수 있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 시, 타인의 시선과 환경적인 요인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문 결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사이버 폭력 피해자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오프라인 설문 결과는 돕는다(10명), 무시(5명), 온라인 설문 결과는 돕는다(1명), 무시(14명)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회실험의 결과로 응답자들이 타인의 사이버 폭력 피해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문대학교 2층 학생상담센터, 팀원 4명, 2019.6.5.

사이버 폭력 피해자 사례 자료 전시 및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권유하는 활동을 하였다.



선문대학교 2층 사회봉사센터(오용선 과장님), 팀원 4명, 2019.6.5.

사회봉사센터에 방문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센터 과장님의 자문을 구하였다. 다문화센터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진행,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수련 참가, 아동센터 방문 등의 활동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선문대학교 친교관 RC 라운지, 팀원 4명, 2019.6.13.

팀원들이 모여 활동 관련 비디오를 편집하고 사회실험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디오 상영을 위한 교회 방문 및 다문화 센터 방문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충남 아산시 다문화 센터, 팀원 4명, 2019.8.25.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려주어 사이버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중고등학생이 모이는 다문화센터에 방문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가졌다. 교육 전에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실험과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예방 교육 이후에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추후 편집된 영상을 페이스북 등의 SNS에 게시할 계획이다.



선문대학교 채플실, 팀원 4명, 2019.9.25.

사이버 폭력의 인식과 예방을 알려주기 위해 선문대학교 채플 시간을 활용하여 올해 "사이버 와이즈"의 활동 및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손바닥 찍기 서약' 활동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함께 비를 맞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끌어낸 것이다. 사이버 와이즈는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보고 느끼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목격했다. 사이버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접근에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작은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수백 명이 된다. 그 수백 명은 행동하기 전, 사이버 와이즈의 메시지와 자신들의 손도장 같은 다짐을 상기시키며 방관자가 아닌, 비를 함께 맞아줄 존재가 되어 줄 것이다.

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모든 팀원이 대학생이다 보니 모임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다. 시간을 정해도 개인적인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모임을 미루기도 했고, 계획했던 많은 활동을 시행하지 못했다. 사이버폭력

은 민감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람들은 사이버 폭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얻기 위해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 갈 길을 아직 멀다고 생각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축제 때 활동으로 설문조사와 사이버폭력에 관한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담 심리 수업을 듣고 있었던 남학생의 인터뷰이다. 그 학생은 평소에 소심하면서 자기 의견이나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터뷰에 응했을 때 가장 놀랐다. 인터뷰를 하면서 놀랐던 점은 그 학생이 실제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해왔다는 사실이다. 인터뷰 주제가 학생에게 민감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감동을 느꼈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테이무리 잠 미나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처음에 유네스코 평화누리를 신청했을 때 선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누리 동아리로 선정되었을 때 마음이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기뻐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한 후에 첫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극복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팀원들 모두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활동 일정과 개인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누리 활동을 지속했지만, 활동 초기에 사이버 폭력에 관해 느꼈던 열정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 활동의 전환점은 활동 이후 피드백을 주고받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이버 폭력에 관한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를 더욱 알게 되었고, 현재 사회 현황까지 알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 팀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했을 때는 심각성이 크게 와 닿지 않았지만,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게 되니 개선할 필요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의견은 일부분일 뿐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는 세상

이니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하며 내 주장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경청하는 자세를 다시 배운 것 같습니다. 팀원들 덕분에 활동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약자와 더불어 살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 정의를 세우고 인간성을 살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한국어를 공부하며 읽었던 나태주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라는 시처럼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우므로 그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leaving no one behind 라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淑明:세상을 밝힐 숙명

숙명여자대학교 KUSA

淑明:세상을 밝힐 숙명

숙명여자대학교 KUSA



함께한 친구들 이유신(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은(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윤정현(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선영(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황채령(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지역, 학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중고등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부재는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을 초래하며 이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잘못된 성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인 언어의 사용 역시 잘못된 성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숙명팀의 성평등 교육에 있어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바뀌나가야 하는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지역,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했나요?

성평등 교육에 있어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는 교육의 부재로 차별받지 않고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학교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의 부재로 생긴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성차별적인 언어를 성평등적인 언어로 바꿔나가며 성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4월

숙명여대 평화누리 팀은 5월에 진행할 축제 부스에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할 지에 대해 회의하였다. SDGs 5번을 큰 주제로 삼고, 미디어 속 성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미디어 중에서도 광고에 집중하여 광고 속 성차별에 대해 조사하였다.



5월

4월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를 통한 성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대중매체 속 성차별 사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광고 속에는 어떤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보고, 성평등적 가치관을 갖도록 인식을 제고하였다.



6월

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중고등학교와 함께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회의를 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언어 중 성차별적인 언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성평등적인 언어로 바꾸는 캠페인을 기획하여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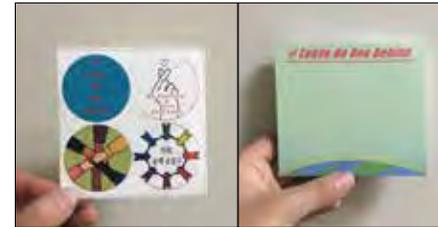
7월

휘경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언어를 통한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형마트와 복지관 두 곳에서 시민들에게 성차별적인 언어를 성평등적인 언어로 바꿈으로서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인지하게 하여 성평등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제고 하였다.



8월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교육을 하였다. 앞서 진행한 캠페인을 바탕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현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어떤 페미니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9월

청소년 페미니즘 교육 부재와 관련된 연사님을 초청하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였다.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을 비롯하여 스쿨미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페미니즘 교육과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여 페미니즘 굿즈를 제작하였다.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가장 처음 저희에게 와 닿는 변화는 우리 팀 자체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페미니즘 관련하여 각박하기만 할 것 이고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찌면 학생들은 세상일에 저희 보다 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화는 저희 프로젝트 참가자에게도 이루어 졌습니다. '광고 속의 젠더' 라는 일상 속에서 보는 광고 중 성차별적 요소를 찾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참가자 후기를 들어 보니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내가 보고 있는 많은 광고 속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을지 몰랐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인에게도 잘못된 점을 알려주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사회를 변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관과 컨택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전문팀이 아니며 저희를 증명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측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목표와 진행 예정 활동 등을 자세히 보고서 및 기획안으로 만들어 여러 기관에 컨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마음만 앞선 프로젝트가 아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어필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부평성문화센터와 경동시장 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월에 휘경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입구에서 시민 분들에게 성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어에 투표를 부탁드리고 관련 설명이 첨부되어있는 팸플릿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간에 잠시 밖에 나갔는데 설명을 들으셨던 시민 분께서 일행 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단어에 이런 뜻이 내제되어 있었는지 몰랐으며 여기 있는 단어들 공부해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의미가 있을까, 우리 몇 명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우리에게 행동에 대한 확답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일들에 동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후기

이유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저는 숙명팀의 팀장 이유신입니다. 선 큰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아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여성 소년원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기회들로

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과정 교육봉사와 성평등가치관 교육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년원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어 저희 팀에게 주어진 봉사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적인 한계로 처음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상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활동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1인 콘텐츠 매체의 확산으로 여성비하적인 요소들을 담고있거나, 나아가 여성비하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일종의 놀이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라는 교육공간의 특성상 스쿨미투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학생들이 직접 성평등적 분위기를 확립해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해 바로 알고 스스로 성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페미니즘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의 미비한 성평등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를 야기하며 이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성평등이라는 같은 주제로 대상을 확장해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휘경여고 학생들과 부평청소년성문화센터에 방문한 청소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휘경여고 1학년 학생들과 '언어 속의 젠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상대로 페미니즘에 공감과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수였지만 저희의 생각보다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끼리 판단했던 학생들의 젠더 인식이 생각보다 높았던 점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저희의 선입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휘경여고 학생들과 함께 버스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언어속의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분들이 대부분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시는 시민 분들이 많아서 학생들도 저희 팀원들도 뿌듯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 가능성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가 스스로 과소평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을 소개하고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언어 속의 왜곡된 젠더 인식을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던 이번 경험으로 학생들이 프로젝트 이후 능동적으로 성평등적인 교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휘경여고와 함께한 '언어속의 젠더' 활동의 성과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후 페미니즘 교육이 의무화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평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의 활동은 이미 페미니즘에 상당한 관심이 있거나 수용에 있어 개방적인 학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학 내 페미니즘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5번 성평등의 의미를 비롯한 인권운동에서 성평등운동의 위상과 가치, 타 인권영역과의 관련성 등의 심화된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부평 성문화센터에서의 활동을 계기로 학생들이 어리고 열려있는 만큼 더 빠르고 쉽게 페미니즘을 수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페미니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그 영향력이 상당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청소년 페미니즘 연합 '위티'를 알게 되었고 청소년들이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이 부족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 집단이 페미니즘 논의 속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숙명여대 내부에서 '위티'의 대표 '양지혜'님을 비롯하여 실제 청소년들과 함께 강연 및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비록 평화누리 활동은 끝나더라도 저희팀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회 문제를 인지하였고 공감하고 해결해나가기.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세계시민으로써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원들도 많이 느끼고 배우고 학생들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평화누리 활동을 계기로 사람들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 존중에 대한 설득의 여지와 인식의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으로서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큰 자양분이 된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에 감사드립니다.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휴먼필릭(Human-philic)

슈쿠(SWU KU)

휴먼필릭(Human-philic)

슈쿠(SWU KU)



함께한 친구들 노유란(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전공), 성세정(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전공), 김유니(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이계영(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성현아(서울여자대학교 화학전공)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지역, 학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노원구에 있는 용화여고는 교내에 발생하고 있는 여성혐오 사건을 세상에 알린 '스쿨미투'의 대표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를 보아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약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 비속어는 사회적 약자 비하를 뜻하는데, 이 단어들이 가볍게 사용되는 것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혐오 및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지역,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했나요?

본 팀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혐오표현을 지양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뿐더러 혐오 표현을 마치 유행어처럼 쉽게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대단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스로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환기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영화 '카트' 상영회: 토의 진행&단체사진]

2019년 4월 30일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누리관 114호 소극장을 대여하여 영화 '카트'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KUSA 서울여대지부 부원 25명이 참여했으며 교내 영화 동아리 '무빙'의 조언을 받아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노동인권에서 감정노동, 청소년아르바이트, 갑질 등이 중요한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생의 경우 이와 같은 '근로' 관련 이슈를 겪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심의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여 영화 시청 후 관련된 토의를 진행하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 영화 시청 후 작성할 시간을 주고, 의견 취합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을 통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개선된 상황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노동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문제 인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토의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캠페인: 사다리 타기&빈칸 판넬]

2019년 5월 22~24일 본교 축제 기간 서울여자대학교 만주별 판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의와 혐오표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KUSA 서울여대지부 부원들과 함께 학술 교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사회적 약자에 관한 차별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다리타기를 통한 OX, 객관식 문제와 빈칸 채우기 등 간단한 게임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부스에 참여한 정도에 차등을 두어 부채, 간식, 포토카드를 배부하였는데, 덕분에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SNS 이벤트를 통해 확인된 후기를 보며 혐오표현 확산의 배경,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글을 다수 확인하여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품기부 캠페인: 포스터 사진]

2019년 6월 10~21일 약 2주간 슈쿠 팀원들이 서울여자대학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교내 5곳에 물품 기부함을 설치하여 물품을 기증받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협력하게 된 '굿월스토어'라는 단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기증받은 물품을 직접 판매, 수거, 분류, 진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일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일회성 '자선'이 아닌 '일할 기회'를 마련하며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인도적 차원의 인식에서 벗어나 직접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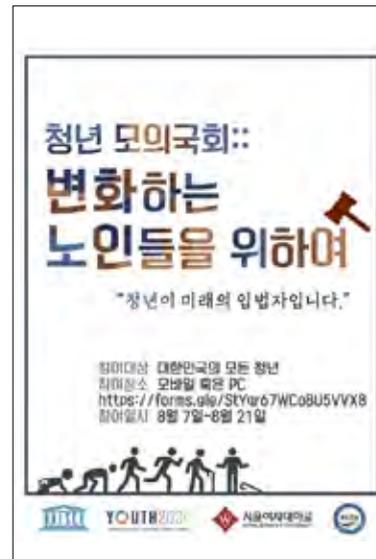
[고등학생 인식개선 캠페인: 현장 수업 사진]

2019년 7월 15일 슈쿠 팀은 청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교과 특별활동 시간에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와 혐오표현에 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역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대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자가 캠페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재 교육과정이 반영된 고등학교 교과서를 참고하여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또,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교재와 PPT에 다양한 예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화가 형성되는 것에 10대 학생들의 비중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혐오표현'을 그저 '문화'로 인식하여 향유하게 되면 '혐오문화'가 곧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물들어버릴 것입니다. 본 팀은 이를 막기 위해 '혐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잘못된 언어표현들을 소개하는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영상과 예시를 통해 시시각각 표정이 달라지는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혐오와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청년 모의국회: 포스터 사진]

2019년 8월 7~21일 대략 3주간 진행되었던 온라인 청년 모의국회는 노인 관련 법·제도 제·개정에 관해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었으며 슈쿠 팀원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부터 43세까지의 청년 약 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현재의 노인복지법에 관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게시하여 청년 모의국회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현재의 법 또한 인지할 수 있게끔 기획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 독거노인, 노인사기 등을 통해 노인들이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느낀 우리는 이 모의국회를 통해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약 50명의 의견을 읽어보면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는 법에 관한 조항을 분석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였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게시하는 활동을 통해 일회성 설문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인권 초청강연: 포스터 사진, 단체 사진]

2019년 9월 28일 슈쿠 팀은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관 640호를 대여 받아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라는 페미니즘 에세이 저자 홍승은 작가님을 초청하여 여성에게, 소수자에게 언어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와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작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받는 차별, 시선 등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진행된 강연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의문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나에 대한 방향성을 재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1. 캠페인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위한 제도나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과 우리 또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들만을 위함이 아닌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해 함께 해내야 함을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참가자와 더불어 기획하는 본 팀원들 스스로도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 곳곳에 깃든 차별과 혐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인식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많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비교적 적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본 팀은 바로 이 점에서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매달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목

적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 상영회를 통한 토론, 캠페인 참여, 물품기부, 모의국회, 강연 등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모두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 팀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었고 이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추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본 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달 다른 행사를 실행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참여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홍보를 시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모든 행사를 교내 커뮤니티와 각 팀원의 SNS에 홍보했으며, 교내외에 본 팀의 인지도를 향상하는 것 또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활동 후에는 이를 카드뉴스로 정리하여 여러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행사 후에도 본 팀이 추구하는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젝트 진행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본 팀의 마지막 행사인 '소수자의 글쓰기' 강연이었습니다. 두 달여 전부터 본 팀이 추구하는 목표와 알맞은 강사를 찾고, 섭외 이후에는 강사와 강의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질문하고 필기를 하는 등의 소통을 하면서 강연에 참여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게다가 강연 후 본인이 직접 구매한 저서를 들고 와서 싸인을 받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강연 기획 및 진행과정이 캠페인과 행사와 달랐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후기

성현아 (서울여자대학교 화학전공)

유네스코 평화누리 공고를 처음 봤던 날을 떠올려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들의 참여'라는 문구에 호기심을 느껴 참여하고자 다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팀을 이루어 평화누리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고작 5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기대감을 갖고 기획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팀인 '슈쿠'에서는 Human-Phylis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매달마다 다른 범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들을 진행하기로 기획하였습니다. 4월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카트' 상영회와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토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5월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축제인 '사랑제'에서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 및 혐오표현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들을 준비하고 SNS 이벤트를 기획하였으며 포토카드와 부채 등의 굿즈들을 나눔 했습니다. 평소 몰랐던 혐오표현이나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서울여자대학교 학우들에게도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6월에는 물품기부 센터인 '굿윌스토어'와 협력하여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에서 물품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굿윌스토어는 기부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생산적 복지를 이루어나가는 곳으로, 직접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내에 설치한 물품 기부 박스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품이 모였고, 기증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7월에는 직접 청원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캠페인과 달리 10대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인 만큼 실제 교육과정에서 쓰는 사회 교과서를 참고하여 워크북을 제작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적 불평등 현상과 혐오표현의 개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과 미니게임과 퀴즈 시간을 가지며 10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에 변화를 주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시간에서 한 학생이 페미니즘에 관하여 물었던 것이 가장 인상 깊는데, 이를 통해 10대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노인복지법 제·개정과 관련하여 모바일 청년 모의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노인복지법 내용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년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의국회 내용은 노인 연령의 기준, 노인 학대 관련 법 개정, 노인복지 관련 법 개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참여를 위해 홍보에 힘썼던 프로젝트이고, 결과적으로 50여 명 되는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자발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법한 법 조항들이 많았는데 이를 팀 내에서 카드뉴스로 정

리하여 모의국회를 참여하는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시된 의견 중에서 노인 학대 관련 법 중 긴급전화의 설치는 노인들이 사용방법을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119, 112 등의 더 간편한 번호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 주택 입소 자격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제정에 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셔서 축소된 형태이지만 모의국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9월에는 페미니즘 에세이의 저자인 홍승은 작가 초청강연을 교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작가님께서서는 단어와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퇴생'과 '홈쿨링'이라는 두 단어가 자신을 대변하는 같은 단어일지라도 관념에 의해 해석되는 바가 상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작가님께서서는 단어의 선택과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타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님이 매우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마무리된 후에도 많은 학우 분들이 작가님께 사인을 받아가거나 서로 덕담을 하는 것을 보니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팀 일원으로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룬 것 같아 보람찼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길다고 말한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주었고 최선을 다했기에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체계적인 팀 프로젝트는 대학교 진학 후 처음 경험해보았는데 하나의 활동을 할 때도 사전 조사, 포스터 제작, 유인물 제작, 홍보, 장소 대여, ppt 제작 및 발표, 예산 관리 등 매우 큰 노력이 들어가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를 잘 이뤄낸 팀원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벅찬 일정이었지만 매달마다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사람들, 학우들에게 전달한 것들과 얻어간 것들은 처음 예상했던 성과의 배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온다면 참여하고 싶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유네스코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하는 노인들

쿠사랑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하는 노인들 쿠사랑



함께한 친구들 구지원(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노혜승(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성시은(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이재민(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최소원(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지역, 학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점점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발전된 과학기술을 보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뒤쳐져 우리가 잊고 있는 연령층이 바로 노인층입니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정보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조차 한정되어 노인 소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 속에서 모든 연령층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양극화 심화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지역,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했나요?

저희는 이번 평화누리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각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 '나는 아직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넘기는 노인문제에 대해 작은 실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모습들과 실천해온 활동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였다면 저희는 우리사회에 작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2019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여자대학교 축제인 '사랑제'에서 쿠사랑이 KUSA 부원들과 함께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물품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필품들 위주의 물품들을 기부 받았다. 많은 서울여대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찾아와 정말 많은 양의 생필품들을 기부해 주셨다. 덕분에 많은 독거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다. 또한 물품기부가 아니라도 외로운 독거노인 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 마디를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남겨주셨다. 서울여대 학우들의 작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모두가 함께 우리의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셨던 값진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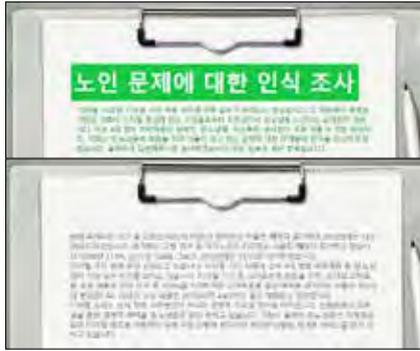
서울여자대학교에서 KUSA가 대학 축제로 사랑제인 2019년 5월 22일부터 24일 까지 3일 동안 부스에서 캠페인과 더불어 학우들과 외부인들에게 물품기부를 받았다. 쿠사랑은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독거노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5월 31일에 기증식을 진행했다. 쿠사랑은 한 달에 1-2번씩 독거 어르신 댁에 방문하기로 했다. 날짜는 5월 29일, 5월 31일에 지도 선생님과 함께 방문하여 기부받은 물품들을 직접 전달해 드렸다. 6월 5일에는 어르신의 생신이셔서 축하해드리기도 하고 6월 8일도 어르신 댁에 방문하였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뵈어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덕담을 듣기로 하고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울여자대학교 KUSA 소속 쿠사랑이 2019년 6월 25일 화요일에 종로3가역 전국천사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 소외되는 노인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쿠사랑이 직접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하였다. 음식 재료들을 그릇에 배분하고, 직접 반찬을 덜어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설거지와 행주로 물기 닦기, 그릇 운반 등의 일을 하였다. 급식소에 오신 어르신들은 모두 우리들과 한마음이 되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식사를 시작하였고, 봉사하러 온 우리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덕담을 해주셨다. 우리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급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들에 감동을 받았고, 이를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더불어 서로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여자대학교 KUSA 소속 쿠사랑이 2019년 7월 22일과 8월 21일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디지털소외 개선 활동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르신들은 디지털소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뿐만 아니라 유용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계신다.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 직접 강연실을 빌려 세미나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여건 상 진행이 불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먼저, 직접 어르신 한분 한분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할 시 더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이용방법', '교통 어플 사용방법'을 정리한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배포하여 많은 독거노인 분들께서 디지털소외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포스터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여자대학교 KUSA 소속 쿠사람이 2019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람들이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 네이버 폼으로 인식 조사를 하였다. 각자의 지인과 sns 계정에 홍보글을 올려 32명의 응답을 받았다. 첫 문항인 현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의 정답률은 47%였고 두 번째 문항인 현재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고령 인구(65세 이상) 중 차지하는 비율의 정답률은 22%로 낮았다. 3번째 문항은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네 번째 문항인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노인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정답률은 59%로 꽤 높았다. 다섯 번째 문항에서 노인의 디지털 소외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반반이었고 여섯 번째 문항에서 노인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쿠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얻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식 조사는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고 유튜브에 활용할 방법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서울여자대학교 KUSA 소속 쿠사람이 2019년 9월 18일 수요일과 19일 목요일에 7시부터 11시까지 쌍문역 근처에 있는 창오동 스튜디오에서 평화누리 활동 계획서를 쓸 때 계획한 대로 유튜브 촬영을 하였다. 9월달에는 원활한 유튜브 촬영이 되도록 촬영 전에 여러 번 만나 콘티를 짜고 연극 연습도 하고 물품 준비도 하였다.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와 정답을 공개하고 독거노인과 노인의 디지털 소외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단지 정보 전달뿐만이 아니라 쿠사람이 직접 생각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재밌게 전달하고자 연극도 준비하였다. 마지막으로 쿠사람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하였던 홍보, 봉사, 설문조사 등을 공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쿠사람의 장기 프로젝트인 평화누리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영상은 티저(쿠사람 소개), 설문조사 정답과 결과 공개, 해결방안, 그 동안의 활동 영상 공개로 구성되는데 영상 편집을 하고 9월 마지막 주부터 쿠사람 채널을 만들어 한 주에 영상 하나씩 올릴 예정이다.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먼저 학교 축제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부스를 운영하면서 학우들에게 노인에 대한 문제를 많이 알릴 수 있었다. 홍보물을 통해 학우들과 네티즌들에게 노인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알렸고 기부 받은 물품들은 모두 협력센터에 기탁해 독거노인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 디지털소외를 알리기 위해 유튜브로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 많은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을 개선해줄 수 있었다. 또한 협력센터에 드릴 유인물을 제작하고 직접 어르신들을 뵈어 교육을 해드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렸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독거노인 디지털소외 개선 활동 세미나를 진행할 때, 우리는 많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연락을 드려 우리의 계획을 소개하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미 많은 독거노인 분들의 디지털 소외를 위한 강사분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문성이 떨어져 장소를 대여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거절하셨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독거노인 분들에게 찾아가 디지털 소외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더 많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팸플릿을 제작함으로써 세미나를 보완하였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여대 학우들에게 기부 받은 물품들을 직접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리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캠페인 전 물품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우리들의 우려와 달리 정말 많은 분들이 물품을 기부해 주셨고, 그 많은 물품을 센터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뵈었을 때, 정말 기뻐하고 고마워하시던 어르신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주셨다는 기쁨과,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 직접 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드린다는 뿌듯함,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우리를 벅차게 만들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후기

최소원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2019년 KUSA에 들어와 '평화누리' 활동을 같이 할 부원을 모집하는 공지 글을 보게 되었고 'SDGs'라는 목표로 활동하는 것에 좋은 취지라 여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무작정 달려들어 계획을 짜려다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았다. 주변 친구들과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도 해보고 조언도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와 언니들과 함께 의논한 끝에 마침내 '노인 문제'로 정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다른 팀과 달리 따로 조장을 뽑지 않았다. 누군가가 조장이 되면 조장에게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조장의 역할을 하듯 서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처음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서울여대 축제인 사랑제때 독거노인들을 위한 성금 모금 행사였다. 학우들이 애용하는 '에브리타임' 어플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자 하였지만, 대외 활동으로서 수익 사업은 홍보가 불가하여 대신 물품 기부를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과연 물품을 따로 가져와서 기부해주는 학우들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 학교 화장실 문에 붙이고, 포스터를 에브리타임이나 과톡 등에 올려 홍보를 하였다. 화장실 한 칸 한 칸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기도 했고, 따로 시간을 내어 전단지를 떼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우리의 홍보 덕분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학우들께서 축제 때 물품을 기부해 주셨다. 다른 학교 소속 KUSA도 물품을 기부해주려 오셨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더 큰 마음으로 커지게 되고 그렇게 커진 마음은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느꼈다. 모인 물품을 우리가 직접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드릴 때마다 정말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청년들의 소중하고도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 드릴 물품이 떨어져도 우리는 매달 어르신을 찾아뵈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닌,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점차 성장해가는 나와 우리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평화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무래도 우리 평화누리 팀원들이 함께 숙박을 하며 활동을 했던 평화여행인 것 같다. 처음에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였다. 몇 번 본 사이도 아니어서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첫날 함께 짐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면서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재미있는 첫날 활동이 시작되었다. 평화여행 3일 중 나는 두 번째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단원고등학교에 찾아가 함께 추모하며, 사건이 터졌을 때의 정부와 공무원들의 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년으로서 힘을 기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울고 나니 배가 고팠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다문화 거리로 유명한 아산시 단원구 원곡동으로 향했고, 처음 보는 광경에 많이 놀랐다. 내가 오하려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간판이든 가격표든 한국어가 아닌 외국말로 적혀 있었고, 외국말만 들렸다. 처음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팀원들과 저녁을 먹으러 찾아가 음식점 주인분의 태도에 조금 놀라기도 하였다. 예상 외로 정말 너무나도 친절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화장실 길을 여쭙보았을 때, 직접 데려다 주시면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었다. 우리 팀원은 노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렇게 다문화 사회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도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 중 디지털 소외 문제를 초점으로 우리 쿠사량은 설문조사와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였다. 청년들의 독거노인과 노인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만들었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과 결과는 우리가 직접 스튜디오를 빌려 촬영을 통해 알려드렸다. 마지막 평화누리 활동인 만큼 정말 할 것도 많고 걱정도 많았다. 대본도 외워야 했고 물품과 다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야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호흡을 맞춰 온 우리 팀원들 덕분에 큰 다툼 없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내었고, 그 결과 만족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그 어떤 활동들보다도 훨씬 힘들면서도 뿌듯하고 재미있고 보람찬 활동이었던 것 같다. 대본을 암기하고 촬영할 때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위로해주며 다시 찍어도 화내지 않았던 언니들에게 고마웠고,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해서 아쉬우면서도 책임감과 협동심, 등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했던 6개월간의 활동이었다.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지속가능 GCED X 멘토링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

지속가능 GCED X 멘토링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



함께한 친구들 이재은(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정승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고현지(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 학부), 배주원(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현정(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외 9인(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원)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지역, 학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저희가 진행해 온 세계시민교육은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의 차원 - 지역사회의 차원 - 지구촌의 차원으로 문제를 확장하며 해당 주제에 대해 인지하고, 그 심각성에 공감하며,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 학생들은 범지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멘토링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사회(지역,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했나요?

저희는 미래에 지역사회 및 지구촌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세계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이웃, 학교)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을 실천할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주체적인 시각으로 지구촌 문제를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프로젝트 실천하기



지부 세미나 중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원들은 매주 월요일 국제관 강 의실에서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펼치고, 발제자들이 준비한 질문을 놓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국제 현안을 이해하고 다른 지부원들과 생각을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얻고 자신만의 의견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세계 시민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1차 신장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UNAI ASPIRE 고려대학교 지부원들은 하남시 소재 신장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두 번의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는 '소수민족의 문제를 통해 살펴본 평화'였습니다. 소수민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이 겪는 불평등한 처우에 공감하게 하며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상생할 방법을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소수민족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제2차 신장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두 번째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는 '미세먼지와 사막화로 인한 환경오염'이었습니다. 최근 빈번히 이야기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사막화를 방지할 방법 및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주제 및 내용이며,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는 피드백을 남겨주었습니다.



동아리 부스를 운영한 지부원들과 단체 사진

지부원들은 5월 대동제 기간을 맞이하여 단체를 홍보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환경 및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기후 난민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판넬 및 퀴즈 코너를 마련하여 상품을 배부하고, 공기 정화 식물과 직접 제작한 예코백 등을 판매했습니다. 정보 전달 및 홍보 활동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제관에서 이루어진 소하고 캠페인 멘토링

6월에 소하고등학교 국제화동아리 학생들을 위해 캠페인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멘토링의 취지는 세계시민교육의 일시성을 보완하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세계시민의식 실천을 돕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생들로부터 캠페인 구성 계획을 들은 후 그를 보완할 수 있게끔 여러 측면에서의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캠페인의 많은 부분을 구체화하고 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한 유엔 기념일 포스터

저희는 매 운영위원회 때 진행되는 세미나를 요약한 게시글과 각종 유엔 기념일을 알리는 게시글 등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학기 활동을 위한 인수인계를 하고, 8월과 9월에 2학기 활동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학기 활동 지부원 단체 사진

8월과 9월에는 2학기 신입 지부원을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여름방학 세계시민교육캠프가 무산되어 이번 학기 세계시민교육 진행 회차를 늘렸는데, 그에 대비하여 수업 내용 준비 및 시연을 하고 비품을 미리 마련해 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인권'을 주제로 발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나요?

'소수민족과 평화', '사막화와 미세먼지'를 주제로 두 차례의 GCED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삶의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캠페인 구상 활동을 통해서 학교 내의 실천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지구촌의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며, 교육자로서 환경,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인권세미나를 진행하며,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문제점들에 공감하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변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세계시민교육의 '공감' 단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인지' 단계에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공감' 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천' 단계에서 도출되는 해결 방안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공감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그 심각성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제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은유를 담은 게임 등을 직접 만들어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여 그들이 당사자의 심정을 느껴 보고, 비로소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당사자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었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6월 1일, 저희 학교에서 소하고등학교 학생들의 멘토링을 진행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교내 국제화동아리의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팀을 나누어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구상해왔고, 저희는 그 계획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것이 느껴져서 인상적이었고, 저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학업이나 진로에 관한 고민들도 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참가자 후기

김현정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평화의 물결의 시작점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의 스펙트럼을 넓혀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으로 처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은 저에게 단순히 지식과 경험만이 아닌 사고의 틀을 넓혀 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우선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은 저에게 평화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네스코 평화누리'라는 명칭만큼, 이번 활동은 SDG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평화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행복한 상태, 좋은 상태라고만 생각했지 평화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지금의 상태가 평화로운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네스코 평화 누리 활동을 하며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평화를 위해 저의 인식부터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발대식에서 들었던 노래가 기억에 남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선을 그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최대한 차별은 배제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제 머릿속에 일종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이를 저희 동아리의 활

동인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을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소수민족과 평화라는 큰 틀을 잡고 인지-공감-실천의 단계로 소수민족 분쟁 문제와 평화의 개념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지 수업 시간에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에 참여하기 전의 저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평화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소수민족이 겪는 차별 문제를 알아보고, 모의유엔 시간에 학생들이 소수 민족 문제에 대한 각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방안 만들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화적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사회가 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름 평화여행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사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 여러 번 접했지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SDGs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SDGs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전략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강의와 안산 다문화 도서관 방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아직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강하다는 생각을 했고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 역시 다문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4.16 기억 교실에 가서 평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잃는 건 남은 가족의 평생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정의의 평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이 평화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길러 주고 세계시민으로서 실천적 활동을 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첫발처럼 느껴져서 뿌듯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청년 세대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활동보고서

펴 낸 때 | 2019년 12월 18일

펴 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 낸 이 | 김광호

편 집 | 김은영 김명신

디 자 인 | (주)금강기획인쇄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04536

전 화 | (02) 6958 4100

팩 스 | (02) 6958 4250

이 메 일 | youth@unesco.or.kr

홈페이지 | www.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SC-2019-RP-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